

# 都市計劃 교육과 展望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에 都市計劃學科가 大學에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으로 都市計劃教育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日本 東京大學에는 1962년에 都市工學科가 신설되었다)

이것은 종래 건축이나 土木工學科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게 되는 都市計劃科目만으로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는 都市化 추세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都市計劃教育에 임하면서 과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都市計劃 關聯學科 教授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本橋에서는 1984년 가을, 裡里 圓光大學校에 都市計劃 關聯學科 教授들이 모여서 토론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도시계획 교육의 실정과 전망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 全國 都市關聯學科 현황

1984년 현재 全國에는 9개 大學에 다소 상이한 명칭으로 都市關聯學科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되어 있다.

學科의 명칭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市計劃學科가 4개校로 가장 많고 都市工學科가 3개校, 특이한 명칭으로 都市計劃工學科와 都市工學專攻이 각각 1개校로 되어있다(都市計劃工學科는 그 명칭을 計劃科나 工學科로 바꾸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全國 都市關聯學科의 學部學生 입학정원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3명이고, 教授는 36명이어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2,3,4학년 학생수는 1,659명으로 教授 1인당 46명의 학생을 교육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이 數字에는 대학원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학원생까지 합치면 教授 1인당 지도해야 할 학생수는 5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大學校의 경우 교수 1인당 11명의 학생을 지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984년

이 논문은 지난 2월 16일 대한국토 계획 학회가 「도시계획 실무발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 52 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편집자 註)

朱 鍾 元  
<서울대工大 都市工學科 교수>

〈표-1〉 전국 도시관련학과 현황

구 분	학 과	학생정원(입학정원기준)	2, 3, 4학년 학생 수	교 수	교수 1인당 학생 수
경 원 대	도시계획학과	51	153	1	153
계 명 대	도시공학과	75	225	3	75
동 아 대	도시계획학과	65	195	6	33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32	96	2	48
서 울 대	도시공학전공	22	66	6	11
영 남 대	도시공학과	147	441	4	110
원 광 대	도시계획공학과	52	156	3	52
한 양 대	도시공학과	70	210	6	35
홍 익 대	도시계획학과	39	117	5	23
계		553	1,659	36	46

\* 1학년은 기초과정만 이수하고 있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표-2〉 학과 명칭별 분류

학과명칭	학과수	비 고
도시계획 학과	4	경원·동아·서울시립·홍익
도시 공 학 과	3	계명·영남·한양
도시계획공학과	1	원광
도시공학전공	1	서울

현재 대학원생이 57명(碩士課程: 35名, 博士課程: 22名)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교수 1인당 20명의 학생을 지도하도록 되어있다. 더우기 학교에 따라서는 教授 1인이 153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실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수진의 전공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名の 教授中에서 50%에 해당하는 18명이 도시계획분야이고 공학적인 성격이 강한 교통,

〈표-3〉 교수진 전공별 분류

구 분	경 원	계 명	동 아	서 울 시 립	서 울	영 남	원 광	한 양	홍 익	계
도시 계획 <sup>1)</sup>	1	1	4	2	1	2	2	2	3	18
도시 설계 <sup>2)</sup>		1	1		1			2	1	6
측 량 학					1					1
교 통 계 획			1		1	1		1	1	5
／ 공 학					1	1	1	1		4
환 경 공 학					1					2
위 생 공 학		1			1					2
계	1	3	6	2	6	4	3	6	5	36

1) 도시계획, 지역계획, 도시사, 도시구조, 도시경제포함

2) 도시설계, 조경설계, 건축설계포함

측량, 환경, 위생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 教科課程의 비교

裡里 圓光大學校에서 1984년 10월 7일에 열렸던 全國 都市關聯學科 教授協議會에서 작성된 “全國 都市關聯學科 教科課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대학에서 적게는 28과목에서 41과목까지 개설하고 있으며 교과목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여 보면 서울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都市 및 地域計劃各論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서울대

학교에서는 都市施設 기초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건축, 조경, 사회, 지리, 경제 및 도시공학실습 등까지 고르게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대학별 교과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暎園大學 : 1학년부터 전공과목(제도실습, 도시계획개론, 도시계획사)이 개설되어 있고 전산학, 공업수학, 구조역학, 상하수도, 환경공학분야는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都市計劃理論,

都市計劃各論, 設計製圖, 都市計劃지원분야(경제, 지리, 사회학)의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2) 啓明大 : 環境, 上下水道分野의 비중이 적은 것을 제외하고는 全分野에 걸쳐서 여러 교과목이 고르게 개설되어 있다.

3) 東亞大 : 전산학, 공업수학, 환경, 상하수도 분야는 개설되어 있지않고 나머지 분야는 고루 개설되어 있다.

4) 서울市立大 : 1학년부터 전공과목(도시학, 도시학개론)이 개설되어 있고, 환경, 상하수도, 역학분야는 비중이 적게 되어 있으며 都市計劃

<표-4> 대학별·분야별 개설교과목

(총과목수-총학점수-총시간수)

대학 분야	경원대	계명대	동아대	서울 시립대	서울대	영남대	원광대	한양대	홍익대	분야별 개설교과목
공학 및 도시 공학기초	5-15-30	4-12-12	2-6-12	5-15-18	5-12-16	5-10-14	5-11-13	6-17-19	5-14-23	전산학, 공업수학, 설계제도 및 모형실습
도시계획개론	6-18-18	5-15-15	3-9-11	2-6-6	2-6-6	3-9-9	3-9-9	2-6-6	3-9-9	계획이론, 계획개론, 도시계획사, 도시구조론
도시 및 지역 계획각론	11-33-33	8-24-24	8-21-24	8-24-25	6-18-18	8-23-23	7-20-22	10-27-36	7-21-21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및 주택론, 도시설계, 도시계획법규, 분석기법, 도시개발사업, 국토 및 지역계획
교통공학 및 계획	1-3-3	1-3-3	1-3-4	1-3-3	3-9-11	4-11-13	1-3-3	1-3-3	1-3-3	교통공학, 교통계획
도시시설 기 초분야	2-6-9	2-6-6	2-5-5	2-6-8	13-39-44	2-3-4	2-6-7	4-12-12	2-6-6	구조역학, 측량학 및 실습, 유체역학 및 수리학
도시시설분야	2-6-6	1-3-3	1-3-3	1-3-3	5-15-16	3-9-9	1-3-3	1-3-3	2-6-6	도시시설일반, 상하수도
환경공학 및 계획	2-6-6	3-9-9	2-5-5	1-2-2	4-12-12	5-12-16	5-13-13	4-12-12	2-6-6	환경개론, 도시환경처리공학, 환경공학 및 위생학, 환경법규
도시계획지원 (건축, 조경)	2-6-6	1-3-3	5-15-15	7-21-27	.	.	1-3-3	1-3-3	3-6-9	건축, 조경, 도시지역경제, 도시지리학, 도시행정 및 제정, 도시사회학 및 심리학
(도시계획지원(사 회, 지리, 경제)	7-18-18	5-15-15	5-15-15	2-6-6	.	1-3-3	2-6-6	2-5-5	4-12-12	도시계획 연습, 실습
도시공학(계획) 실습	3-9-15	3-9-9	3-8-16	2-6-12	.	.	2-4-5	5-11-23	4-12-24	도시계획 연습, 실습
계	41-120-144	33-99-99	28-78-98	31-92-110	38-111-123	31-80-91	29-78-85	36-99-120	33-95-125	

지원분야(건축, 조경)의 비중이 크다.

5) 서울大 :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力學, 測量分野의 개설과목이 他校보다 비중이 크고 都市計劃 지원분야(경제, 지리, 사회학)와 都市計劃實習分野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6) 嶺南大 : 全分野의 교과목이 고루 개설되어 있으나 都市計劃支援分野와 都市計劃實習分野가 빈약하다.

7) 圓光大 : 全分野의 교과목이 고루 개설되어 있다.

8) 漢陽大 : 도시계획각론과 도시계획실습분야의 비중이 크다.

9) 弘益大 : 상하수도, 환경분야가 빈약하고 도시계획 지원분야(건축, 조경)의 비중이 크다.

### ■ 問題点의 檢討

1) 전국대학 都市關聯學科의 입학정원이 553명으로 이중 30%가 졸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387명의 도시계획을 이수한 工學士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분야에서 수요가 그만큼 있는지 의문스럽다. 더우기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한 工學士가 도시계획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都市關聯學科에서는 이 분야의 수요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력을 공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需要側面에서 보면, 學界, 公務員, 用役業界, 研究所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중앙부서는 물론 50개 都市, 187개 邑 및 139개 郡 등이 있는데 현재 道計劃, 都市基本計劃, 都市再整備計劃을 입안중이고 邑과 郡單位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많은 都市計劃職이 필요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行政當局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都市計劃職을 채용하여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2) 教授 1인당 지도하여야 할 학생수가 평균 46명, 많은 대학은 153명이 되고 있으니 훌륭한 工學士를 배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더우기 대학원생까지 합치면 교수 1인당 50명 이상의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3) 각 대학별로 教課目을 검토한 결과, 教課目의 명칭과 내용이 서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계통이 서있지 않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大學에 따라서는 강조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설된 교과목이 명칭이 같으면 그 講義하는 題目이나 그 범위가 서로 같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都市計劃概論, 都市設計 등 都市關聯學科의 근간을 이루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서로 모여서 강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 計劃家의 教育

교육에 의하여 천재를 양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바람직한 計劃家는 人間全般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갖도록 훈련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는 “부분을 알고 전체를 보며” 또한 “전체를 알고 부분을 보는” 教育原則下에 教育받은 사람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部分과 全體”에는 哲學, 社會學, 藝術, 文學, 政治學, 經濟學, 技術科學 등 모든 것이 포함 될 수 있다. 그래서 計劃家가 갖추어야 할 몇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면 첫째, 다방면에 대하여 보편적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무를 위한 班을 편성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각 전문가들을 人選하고 업무를 할당할 수 있는 조직자, 지도자로서의 「리더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전문가의 견해를 비교, 평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건물과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통합·배치할 수 있는 3차원적 設計能力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능력을 갖추고 또한 人間 本然의 문제, 人間生活의 의

적인 表現法 등에 끊임없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求道者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바람직한 計劃家일 것이다.

이와 같은 計劃家を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분야로 교육하는 안을 제시해 본다.

**A분야** : 人間, 都市의 理想(20~30%)

哲學, 藝術, 文化, 都市史, 自然科學概論, 數學 등 都市計劃關係 學科의 기초학과목

**B분야** : 社會的인 價値(20~30%)

都市經濟, 社會, 行政 등 사회과학적인 과목

**C분야** : 都市生活環境空間의 展開(50%)

都市計劃(都市工學)의인 과목

그리고 훌륭한 計劃家を 양성하기 위해서는 學部課程에서는 건축, 토목, 조경 등 가운데에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大學院課程에서 都市計劃分野를 전공함으로써 바람직한 計劃家を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 結 論

근래에 都市化가 급격하게 촉진됨에 따라 都市에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훌륭한 計劃家を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선택과목으로 이수한 都市計劃學을 토대로 計劃家和 計劃行政家가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都市關聯學科가 설치되었고, 어떤 대학은 도시계획학과를 설립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여 그것을 평가할 시기도 된 것 같다.

計劃家は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 풍부한 지식과 예민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즉 長期 및 短期를 社會的인 因子로 예측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계획이 수립되며 그것을 수행하게 된다.

해방이 된지 이미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計劃家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더우기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허다한 不確實性이 제제한 여건하에서 계획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計劃家가 推計한 사항들은 현실로서 나타나며 計劃家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후세들이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식의 계획이 아니라 “꼭 해야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市民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都市計劃事業이 잘못된 計劃家의 손에 좌우되는 경우 都市市民의 복리증진은 커녕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고 都市市民의 건강,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計劃家を 양성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우기 그 수를 너무 많이 공급하여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 보다는 소수의 우수한 計劃家を 양성하여 도시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學會내에 教育分科委員會를 두어 學生定員, 教授數, 教課科目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 전 화 번 호 변 경 안 내

본 연합회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553-2181(대표) / 2185(교환)
	2186(회 장)
	2187(상임고문)
	2188(사무총장)

한 국 과 학 기 술 단 체 총 연 합 회